미국, 남북대화 급물살에 신중한 태도

전날 트럼프 '핵버튼' 초강경 발언
"비핵화 전까지는 압박·제재"
한미 공조 우려 에둘러 표현

북한이 3일 판문점 연락채널 재개통을 전격 발표하는 등 남북 대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는 데 대해 미국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일단 표면상으로 미국을 배제한 채 남북 간 직접 접촉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데 대해 미국은 "남북이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방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방금 '핵단추가 항상 책상 위에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가 가진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윗 말미에 "내 버튼은 작동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한국에는 '대화 카드'를 내밀었지만, 미국을 겨냥해선 '핵단추를 누를 수 있다'고 겁박한 데 대한 '트럼프 식' 대응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 본토 타격을 위협할 때마다 미국의 최강 군사력을 있는 대로 과시하면서 '완전 파괴', '화염과 분노' 등 한층 높은 초강경 수사를 동원해가며 응징 메시지를 발신해왔다.

남북 판문점 연락채널 주요 일지

2008년 11월 북한, 우리 정부의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문제 삼아 판문점 연락채널 차단

2009년 8월 북, 채널 복원

2010년 5월 우리 정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응해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5·24조치 단행. 북, 판문점 채널 중단.

2011년 1월 북, 판문점 채널 복원.

2013년 3월 북한, 1991년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폐기 선언하며 판문점 연락 채널 일방적으로 중단.

6월 7일 북, 당국간 회담 제의하며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방식으로 채널 복원.

6월12일 북, 당국회담 무산의 책임을 남쪽에 돌리며 또다시 통화 불응.

7월 3일 통화 다시 성사

2018년 1월 3일 오후 3시30분(북한 시간 오후 3시)부터 판문점 연락채널 재 개통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올린 트윗에서는 김정은의 대화 제안을 두고 "로켓맨이 지금 한국과의 대화를 처음으로 원한다"면서 "아마 이것이 좋은 소식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켜보자"고 말했다.

백악관도 이날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할 때까지는 최대의 압박과 제재로써 북한을 옥죄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도 "두 나라가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들의 선택"이라며 일단 대화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시점에 남북이 급격히 '대화모드'로 전환하는 데 대해 미국이 다소 불편해하는 기류도 읽힌다.

노어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김정은은 한미 사이에서 이간질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정은의 대화 제안이 대화에 방점을 둔 한국과, 압박에 방점을 둔 미국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꼼수일 수 있지만 이는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점, 다시 말해 '북한의 핵 포기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원칙 속에서 한미 공조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한국 정부에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을 제외한 남북 간 직접 대화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상황을 아직 평가 중"이라며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3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의 '2018 동원 훈련대회'에 군복을 입고 참관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신화망 화면 캡처=연합뉴스〉

새해부터 군복 입고 나타난 시진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새해 벽두부터 군복을 입고 공개 석상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3일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이날 오전 '2018년 군 동원 훈련 대회'를 했으며 시진핑 주석이 참석해 전군에 훈련 명령을 내렸다.

이날 시 주석과 중앙군사위 고위 간부들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열린 군의 열병식을 참관했으며 시 주석의 훈령이 떨어지자 현장의 병사들이 일제히 구호를 외치며 훈련에 돌입했다.

시 주석은 이날 방한 군복 외투에 방한 전투모를 쓰고 검은 장갑을 낀 모습으로 중국군 지도부를 일제히 대동하고 나타내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새해부터 시 주석이 군복을 입고 공개 석상에 나타난 것은 집권 2기를 맞아 1인 절대 권력을 과시하고 세계 최강 미국과 맞설 수 있는 중국군을 만들자고 다짐하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7월 30일에는 건군 90주년을 맞아 아시아 최대 훈련기지인 네이멍구(內蒙古) 주르허(朱日和) 훈련기지에서 열린 대규모 열병식에 전투복을 입고 참석해 중국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과 강군 건설의 의지를 천명하며 존재감을 부각한 바 있다. /연합뉴스

AFP "관계회복 진전" WP "한미 분열 의도"

판문점 연락 재개통 외신 속보

3일 판문점 연락 채널을 다시 개통하겠다는 북한 발표에 외신들도 속보로 전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방송에 출연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문제 등을 위해 판문점 연락통로를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대화를 위해 오랫동안 닫혀있던 남북 간 핫라인을 열라고 지시했다"며 이 같은 입장은 김정은 신년사에 이어 한국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관련 보도에서 "지난 1년여간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미국과의 설전이 있었던 후 남북 간의 적대감을 완화하는 또 다른 신호"라면서도 "남북이 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전했다. AP는 최근 몇 년간 직접 접촉 등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날 남측이 제의한 고위급 회담의 수락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FP통신은 판문점 개통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이 보기 드물게 부드러운 어조였다고 전했다.

또 남북한 대화모드에도 압박을 강조한 미국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날 리 위원장의 입장 표명으로 인해 남북 간 관계회복이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김정은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미국을 겨냥해 핵 위협을 하면서도 남측에는 평창 올림픽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며 양측이 만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루 뒤 한국 정부는 북측에 고위급 남북당국회담 제안으로 화답했고, 이튿날 북한이 판문점 채널 복원 의사를 밝힌 것이다.

미국에서는 북한의 의도를 '한미 간 분열'로 읽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정부의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과 관련, "몇몇 전문가들은 북한이 동맹관계인 미국과 한국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최상의 관계는 아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개인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격해왔다"고 분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클링너 연구원은 과거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로 올림픽에서 퇴출당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언급, 훨씬 더 지독한 인권탄압국인 북한에는 왜 이중기준을 두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국, 남북 연락 재개 환영
"김정은·트럼프 설전 멈춰야"

북한이 3일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논의하기 위해 판문점 연락 채널을 재개통한 것과 관련, 중국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판문점 연락 채널 재개통한 데 대한 중국 측 평론을 요구받고 이같이 답했다.

경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과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상호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는 것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면서 "또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것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유관 각국이 반드시 한반도 정세 속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움켜쥐고, 서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중국은 계속해서 한반도 정세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해결의 정상 궤도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 대변인은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핵 단추' 발언과 그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나는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이 있다"는 되받아치기 발언에 대해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도쿄 올림픽 심판, 로봇이 보게 하자고?

日, AI 기술 과시 기회 삼아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에서 관광안내와 경비는 물론 체조경기심판에도 로봇을 활용하자는 논의가 일본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도쿄올림픽 대회 관계자 사이에서는 "올림픽을 로봇의 쇼케이스로 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올림픽을 일본의 로봇 기술을 과시하려는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 때는 대회 시작에 맞춰 탄환열차로 불린 신칸센(新幹線)을 개통해 전 세계에 '첨단기술 일본'의 이미지를 과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회조직위원회, 도쿄도, 정부, 민간기업 등 범정부 차원의 첫 실무담당자 모임을 열어 향후 관련 논의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협의를 시작했다.

국제체조연맹은 2020년 대회 스폰서이기도 한 후지쓰와 '인공지능 심판' 공동개발에 나섰다. 레이저로 선수의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해석해 난도 높은 뒤틀기 등을 판정하려고 한다. /연합뉴스

최고의 투자가치 / 자신있게 추천 / 사정상 급매 합니다.

- **전북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 411-10번지외 10필지**
  (월정 삼거리 코너, 구 월정초등학교 자리)
- 대지 5843평, 건물 512평
- 계획관리지역/ 학교용지 등등
- 현재 관관농원/ 펜션/ 식당/ 캠핑장 운영중
- 2차선 도로접, 삼거리 코너, 계곡등 최고의 위치
- 연수원/ 수련원/ 요양(병)원/ 펜션/ 캠핑장 등등
  모든 용도개발 가능
- **시세 30억**, 급매 20억 (일시불 조건)
- 주인직매 010-3605-5000